여기 사람이 있다 16호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mbout.jinbo.net 02-795-1444
2009.7.11

용산참사,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1월 20일 이후, 인권과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췄다

2009년의 시작은 1월 20일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뜨거운 여름으로 계절이 두 번 바뀌었지만 2009년은 여전히 1월 20일입니다.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지 단 하루 만에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내려온 故 양회성, 故 윤용헌, 故 이상림, 故 이성수, 故 한대성 철거민 열사들은 아직도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계십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용산 철거민, 그리고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해 저항하고 연대하는 민주시민의 시간은 여전히 1월 20일 그날 그대로 혹독한 겨울입니다.

야만과 폭력의 시계는 광폭하게 돌아가고 있다

'살인진압 책임자 무죄, 희생자 유죄'라는 희대의 사기극 발표이후, 용산범대위 주최 모든 집회에 대한 불허통보와 원천봉쇄, 그리고 폭력진압과 구속 · 수배 등 이루 열거하기도 힘든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사람이 여섯 명이나 목숨을 잃은 것에 아랑곳없이 용산4구역 살인개발은 재개되었습니다. 피로 물든 포크레인으로 돈을 주워담으려는 건설사와 투기꾼들, 그 뒤를 봐주는 경찰과 정부, 그리고 건설재벌의 행동대장인 용역깡패. 이들 살인개발동맹은 다시 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참사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해결책 제시도 없이 최소한의 생존의 요구를 외면하고 찍어누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은폐하며 재판마저 파행으로 몰고 갔으며 경찰의 살인진압에 면죄부를 준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은 검찰총장 내정자가 되었습니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가진 자들의 이익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저들만의 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저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이대로라면, 용산참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들의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용산참사 해결에 나서자

7월 20일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택배노동자 故 박종태 열사의 죽음,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끊이지 않고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이들의 절규와 저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존권 사수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투쟁의 중심에 용산이 있습니다. 매일 천주교사제단의 미사와 범대위 참여단체들의 촛불문화제, 그리고 매주 범국민 추모제는 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범대위의 용산현장 농성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고 용산4구역 철거민들은 서울시청 앞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윤과 폭력을 가치로 삼는 정부, 경찰, 건설자본, 용역깡패의 힘은 지금은 클지 몰라도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의 거대한 힘과 끈질긴 생명력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증명해왔습니다.

용산참사 반년, 우리의 힘을 모으자

이제 민중의 거대한 힘의 응집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용산참사 반년, 그 어떤 야만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은 우리의 힘을 모아냅시다. 용산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유족과 철거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 철거민 열사들 장례를 치르고 편안한 곳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로지 민주시민들의 동참에 달려 있습니다. 용산 참사 반년, 우리의 힘을 모읍시다.

용산참사 반년, 범국민 추모주간(7.11~20) 행동제안

◆ 국민 추모행동
- 가슴에 추모의 검은 리본을 답시다.
- 홈페이지, 블로그, 메신저 아이디에 검은 리본을 부착합시다.
- 꽃이나 초를 들고, 용산참사 현장 국민분향에 참가합시다.
- 차량에 추모의 검은 리본 달고 운행 합시다.
- 7월20일 낮12시에 1분간 추모의 차량경적을 울립시다.

◆ 용산참사 해결 촉구 행동
- 청와대,서울시청,용산구청,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깁시다.
- 지역별 촛불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참여합시다.
- 전국 교회,성당,사찰,사업장,각 단체에 추모의 현수막을 부착합시다.

신문16호.indd 1 2009-07-11 오전 1:58:38

살인개발 책임자 오세훈 서울시장
살인개발 중단하고,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

▲ '5mb',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50개를 공약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살인진압 이명박, 살인철거 오세훈

용산 철거민들의 죽음의 원인은 이명박 정권에 의한 경찰의 무자비한 살인진압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고품격, 명품도시로 만든다며, 개발지역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책 없는 살인개발에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용산을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하고자하는 화려하고 거대한 개발계획을 속도전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개발한 서울시의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개발을 뉴타운,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년 안에 밀어붙이려고, 서울시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갈 곳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의 용산참사 책임회피

그럼에도 살인개발의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부시장은 "시간이 돈이다.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말로,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의 생존권 보장없은 살인철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산참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은,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 경제문화도시 등등의 서울시 개발 수식어에서, 문화와 생태, 디자인으로 걸 포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얼굴 이면에 불도저식 막개발의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서울시 재개발 보완대책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 보완책이라고 내놓고 있지만, 역시 세입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철거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보상금 몇 푼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가세입자들을 위한 임시상가와 개발 후 임대상가를 통해 장사하던 곳에서 계속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박하지만, 절박한 생존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철거민 생존권 보장없이, 용산참사 해결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개발보다 인간입니다. 도시서민 다 내쫒는 무분별한 개발을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용산참사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용산4지구에 재개된 살인개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임시상가, 임대상가 등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돌아가신 철거민들이 망루 위에서 외쳤던 용산4지구 철거민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 없이는, 용산참사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책임있는 자세로, 서울전역의 개발지역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겸허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서 법원명령 거부하고, 수사기록 은폐하나

용산참사와 관련 구속된 철거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나, 검찰이 수사기록 1만 여 쪽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0여 쪽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공개 자료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사기록 공개를 재차 촉구했고, 재판부는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를 명령했으나, 검찰은 법원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 명령까지 거부하면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시 기소 자체를 기각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나라의 사법부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공개 3000쪽, 살인진압 핵심 책임자들의 진술담겨

'미공개 3000여쪽'에는 진압작전 당시 경찰의 핵심 지위라인에 있던 인물들의 진술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휘라인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신두호 서울청 기동단장,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등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조서, 철거용역업체 직원의 진술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뒤집을만한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거민과 경찰의 죽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경찰이 건설재벌과 불법용역업체와 결탁하여 철거지역에서 어떠한 폭력을 자행하는가를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은폐하여 진실을 감추고자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수사기록을 은폐한 용산지휘 검사장 천성관을 검창총장에 임명하여 진실을 덮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검찰은 미공개 수사기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서울시 규탄 1인시위 및 야간 노숙 농성' 이 시청 별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4상공 철거민들이 8일 밤부터 시작한 노숙 농성은, 9일새벽 비줄기를 피하고자 설치한 간이 천막이 경찰에 의해 빼앗기고 부서지면서도, 비솟에서도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 노숙 농성에도 많은 지지와 관심, 연대를 바랍니다.

2009 인권영화제 개막작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두번째 이야기] DVD 판매 합니다.

2009년 1월 대한민국 수도서울 용산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으로, 떠나지 못하는, 떠날 수 없는, 남겨진 이들의 삶을 담았다.

* 이 작품은 올해 인권영화제 개막 작품으로 상영되었습니다.

* 상영시간 : 60분 / * 판매가 : 1만원 / * 구입문의 : 용산범대위 02) 795-1444
mbout@jinbo.net

함께합시다!

· 매일 저녁 7시 용산참사현장의 추모미사와 촛불추모제에 함께 합시다.
· 매주 토요일 용산현장 및 서울도심에서 있는 범국민추모대회에 함께합시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사제단의 시국기도가 용산참사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사회각계의 농성도 80여일이 넘었습니다. 용산참사현장에 지지 방문과 농성에 결합합시다.

· 유족돕기와 부상자 병원비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합시다.
국민은행 295401-01-156716 (이종회)
농협 067-02-302163 (이종회)

신문16호.indd 2 2009-07-11 오전 1:58:45